



2021 ISSUE PAPER 4

코로나 19 가 비영리단체에 미친 영향에 관한 인식조사

김성주 |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이영주, 정민정 | 아름다운재단 연구사업팀

2021.10.



아름다운재단
The Beautiful Foundation

목 차

I. 배경.....	4
II. 연구결과.....	6
1 차 조사결과.....	6
1.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 변화에 관한 인식.....	6
2.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비영리 단체 운영 전망에 관한 인식	8
3.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비영리 단체가 우려하는 점	11
4.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 비영리 단체가 가장 필요한 지원.....	13
2 차 조사결과.....	15
1.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 변화.....	15
2. 코로나 19 팬데믹이 비영리단체 운영에 미친 영향	18
3.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 비영리 단체가 요청한 가장 필요한 지원	20
4.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 지원과 사용처	22
5. 코로나 19 팬데믹: 2020 년 경험 vs 2021 년 방향	23
III. 함의.....	25

1. 배경

2020년 2월부터 3월까지 지역단위로 널리 퍼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1차 대유행 기간과 2020년 8월 2차 대유행, 2021년 11월부터 1월까지의 전국적인 3차 대유행 기간 동안 전국의 비영리 단체는 효율적이고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대응했다. 신속하게 체계적인 모금 계획을 수립하고 기부금과 자금 할당을 실시간으로 조정하여 위기 처리했다.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기금 마련 및 지원 프로그램은 잘 수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팬데믹 상황 속에서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비영리 단체는 사업 및 프로그램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다. 갑작스런 비대면 상황 속에서 안전과 기술적인 부분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비영리 단체의 기존 사업이 팬데믹 상황에서 어떻게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는지, 사업에 생긴 변화를 추정하는 방법, 궁극적으로 비영리 단체가 정부가 하기 어려운 사각지대를 찾아 다양한 방식으로 그 역할을 해내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운영과 변화에 관한 부분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본 연구는 코로나 19가 2020년 초 발병 직후 한국의 비영리 부문에 미친 영향과 2차, 3차 대유행을 거친 이후 한국의 비영리 부문에 미친 영향을 비영리 단체를 대상으로 2020년 5월과 2021년 5월 각각 두 차례 걸쳐 조사하였다. 2차 조사에는 정부와 민간의 지원, 지원 사용처, 비영리단체가 한 일과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 추가 조사되었다. 팬데믹 상황에서 비영리단체의 경제 및 운영 상황을 조사하기 위한 설문조사가 시작되었으며, 조사 결과는 단기적, 장기적 지원 계획 수립의 기본 데이터로 사용되었고, 정부, 민간, 재단 등 유관기관과 공유되었다. 또한, 올해 하반기 아름다운재단에서는 본 연구를 좀 더 심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연구자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연구위원 김성주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아름다운재단 연구사업팀 팀장 이영주

아름다운재단 연구사업팀 간사 정민정

설문 문항은 2020년 3월 미국 샌디에이고 대학의 비영리 연구소에서 실시한 코로나 19 및 비영리 단체 연구를 벤치마킹하여 국내 현황에 맞게 재해석하여 진행하였다. ¹조사대상은 아름다운재단 협력단체 및 비영리 단체가 활용할 만한 웹사이트에 공지하여 자발적으로 설문 참여하도록 하였다. 1차, 2차조사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하였다.

<코로나 19가 비영리 단체에 미친 영향에 관한 인식조사>

	조사기간	표본 수
1차	2020년 5월 11일 - 5월 30일	147
2차	2021년 5월 12일 - 5월 22일	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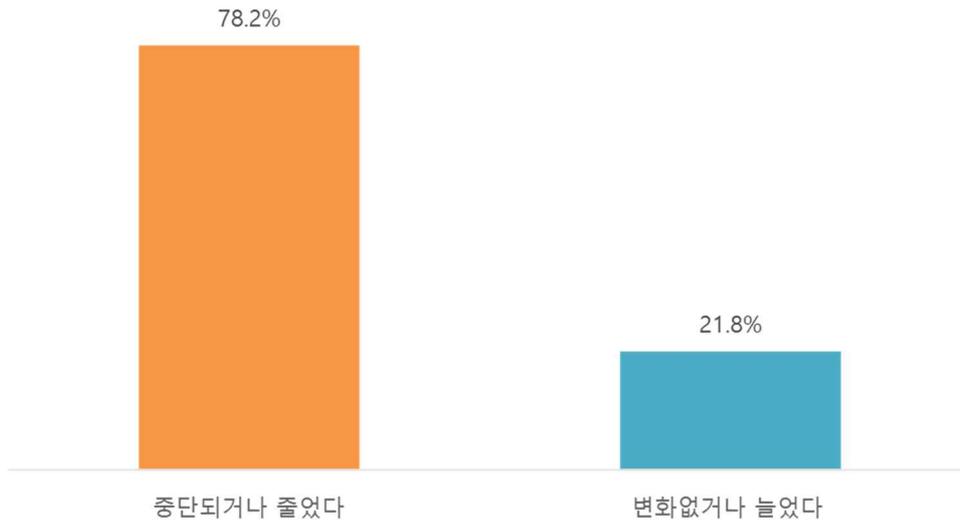
전국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으나, 설문 응답자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비영리 단체 현황 문항으로 활동 분야, 설립 연도, 정규직 직원 수, 재정 분포, 연간 총 지출 기준 조직 규모 등 조직의 특성에 대한 질문하였다. 코로나 19로 인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의 양적 변화와 2020년 분기별 인건비 및 추정 사업 운영비에 대해 질문하여 코로나 19의 단기 영향에 대한 비영리 단체의 인식을 측정하였다. 또한, 설문조사는 향후 6개월 동안 예상되는 어려움과 가장 시급히 필요한 지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했다. 2차 설문조사는 작년과 올해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대체로 동일하게 물었고, 정부와 민간의 지원, 지원 사용처, 비영리단체가 한 일과 앞으로 해야 할 일 등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¹ Unprecedented Disruption: COVID-19 Impact on San Diego Nonprofits (2020) <https://digital.sandiego.edu/npi-npissues/5/>

II. 연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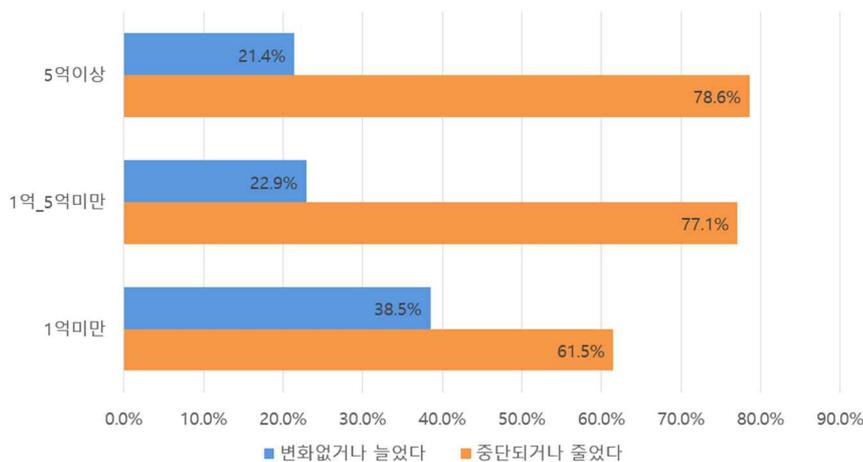
1 차 조사 결과

1.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 변화에 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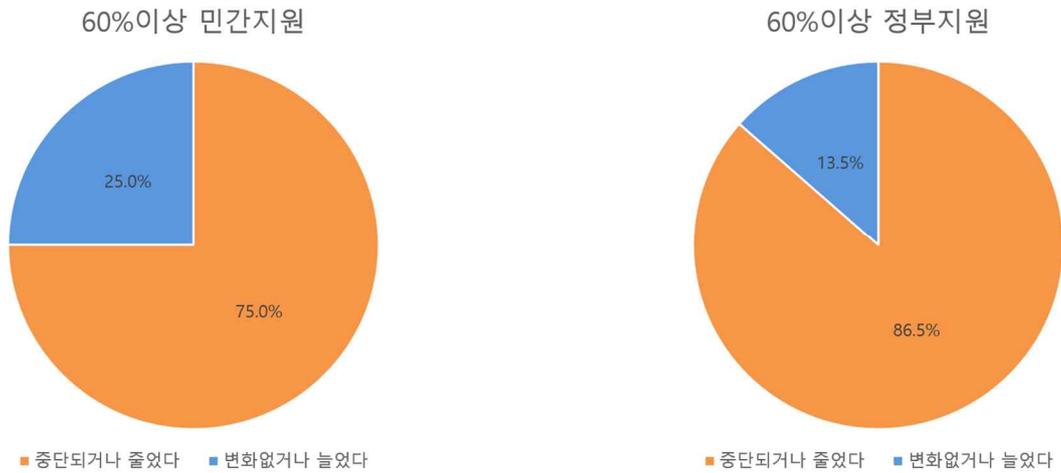
[그림 1]코로나 19 로 인한 서비스 제공 변화에 관한 인식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의 양적 변화 여부에 대해 응답자의 78.2%가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을 줄이거나 중단했다'고 답했으며, 이 중 25.9%는 '서비스 제공을 완전히 중단했다'고 답했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비영리단체가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직 특성에 따른 차이는 다음과 같다.



[그림 2] 코로나 19 로 인한 서비스 제공 변화에 관한 인식_규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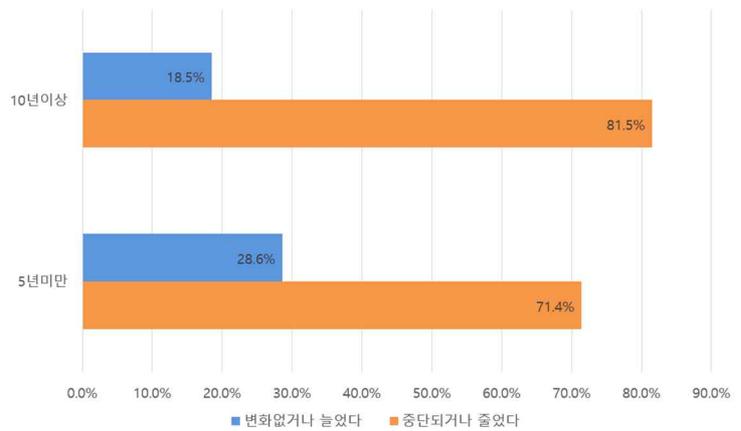
2019 년 총지출 규모를 기준으로 구분하면 5 억원 이상 규모 단체의 78.6%가 '프로그램을 중단하거나 축소했다'고 응답한 반면, 1 억원 이하 규모 단체는 61.5%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규모가 큰 단체일수록 '서비스와 프로그램 중단 및 축소의 경험을 했다'고 응답했다.



[그림 3] 코로나 19 로 인한 서비스 제공 변화에 관한 인식: 민간/정부 지원별

또한, 규모뿐 아니라 단체의 주된 재정 원천(민간과 정부지원)에 따라서도 다른 응답이 도출되었다. 재정의 60% 이상을 민간으로부터 지원받는 조직 중 75%가 프로그램 정지 또는 축소를 경험한 반면, 정부로부터 재정의 60% 이상을 지원받는 조직은 86.5%가 같은 경험을 하였다. 이는 정부 지원의 비율이 높을수록 프로그램 및 서비스 중단, 혹은 감소 경험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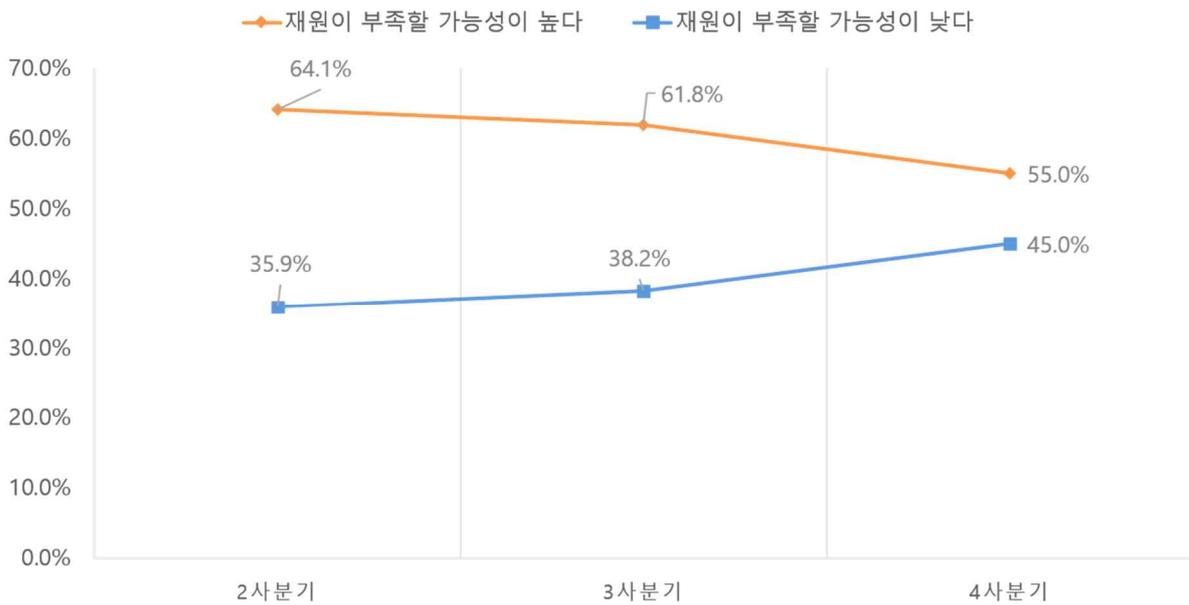
응답한 단체의 설립연도를 5년 미만, 10년 이상으로 구분하여 분석해보았다. 10년 이상 된 조직이 5년 미만의 조직보다 더 많은 프로그램 중단과 서비스 제공 감소를 경험했다.



[그림 4] 코로나 19 로 인한 서비스 제공 변화에 관한 인식_설립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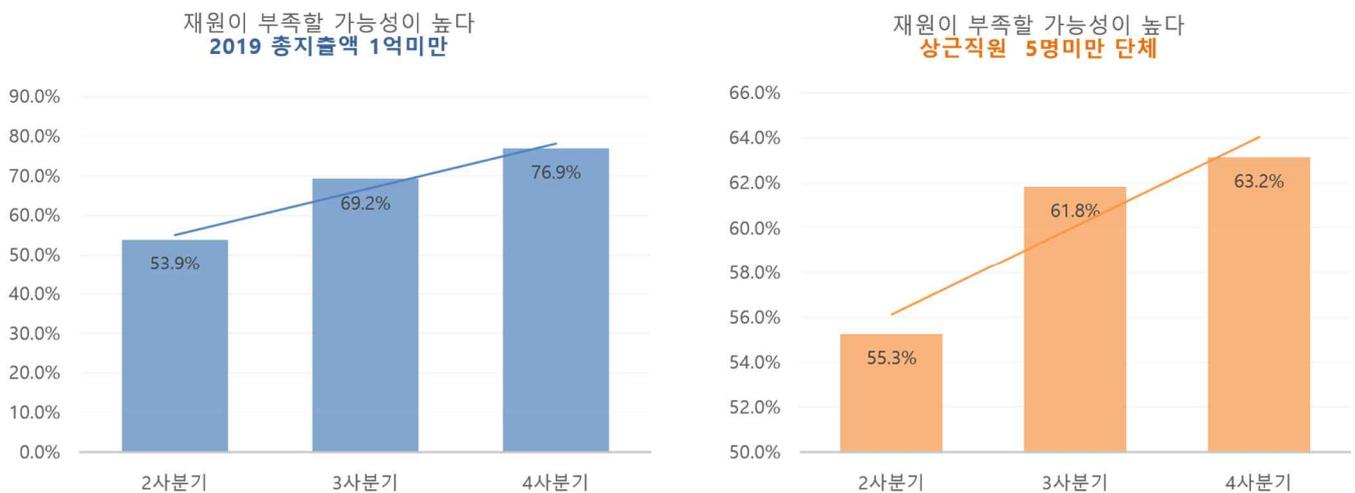
2.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비영리 단체 운영 전망에 관한 인식

코로나 19의 단기적 영향에 대한 비영리단체의 인식은 대체로 긍정적이었지만 조직의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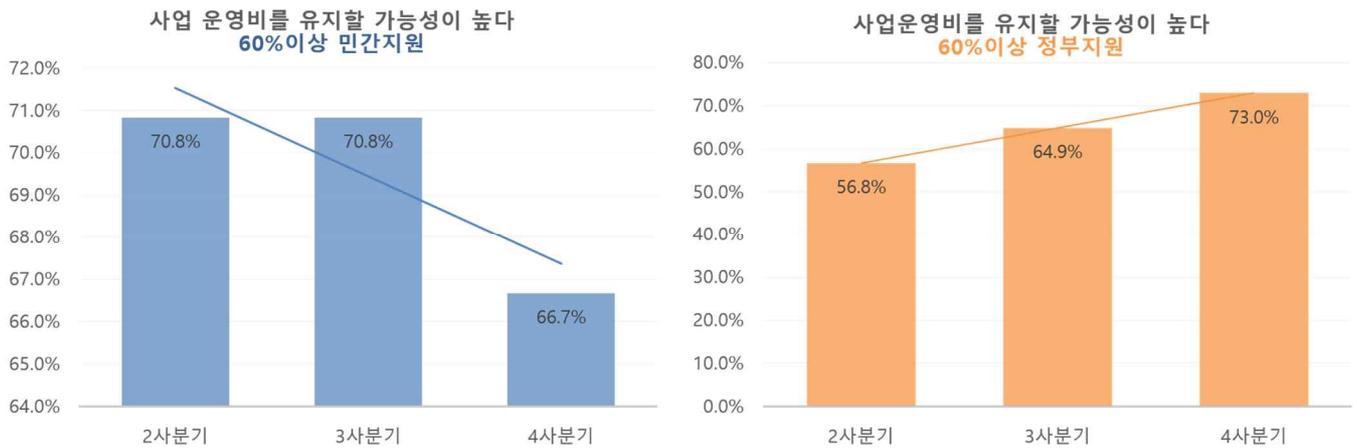
[그림 5] 사업운영비 안정성에 관한 전망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사업운영비가 변동 없이 유지될 가능성에 대해 물었다. 조직이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질문이다. 그 결과, 2 분기에 '지원 부족으로 인한 수익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응답이 64.1%에 달하였고, 4 분기 이후 55%로 다소 감소하여 연말로 갈수록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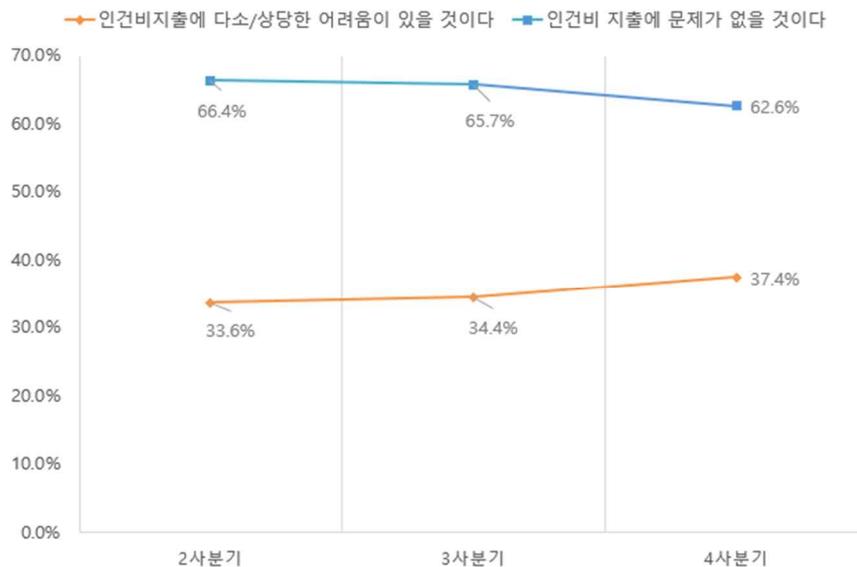
[그림 6] 비영리단체의 지출액과 직원 수에 따른 자원 부족 가능성

반면에, 조직 규모가 작을수록 예측되는 자원 부족 가능성이 높아진다. 2019 년 총 지출액이 1 억 원 미만인 비영리단체 응답에 의하면 2 분기(53.9%)에서 4 분기(76.9%)로 가면서 자원 부족 가능성이 증가한다. 상근 직원이 5 명 미만인 단체의 응답에 의하면, 동 기간을 비교할 때, 자원 부족 가능성이 55.3%에서 63.2%로 증가한다.



[그림 7] 비영리단체 정부/민간 지원 별 사업 운영비 유지 가능성

사업운영비에 관한 조사 결과는 민간지원과 정부지원의 의존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비영리단체 중 민간지원이 재정비율의 60% 이상인 경우(파란색 그래프), '운영비 안정성이 더 불안정해졌다'고 응답하였다. 민간지원비중이 높은 경우, 2,3 사분기는 70.8%로 동일한 추세로 이어지다가 4 사분기에 66.7%로 사업 운영비 유지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반면에, 정부지원의 비중이 60% 이상인 단체는 '사업운영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이 2 사분기 56.8%에서 4 사분기 73%로, 약 15% 이상 점진적으로 증가했다.



[그림 8] 인건비 안정성에 관한 전망

사업운영비는 긍정적 전망이 보인 반면, 향후 6개월, '인건비 지출에 다소/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2사분기에 비해 4사분기에 4%정도 증가한다. 주황색 그래프가 '인건비 지급이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응답으로, 2사분기 33.6%에서 4사분기 37.4%로 증가한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60%이상이 인건비 지출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 답변하였다.



[그림 9] 단체 규모에 따른 인건비 안정성에 관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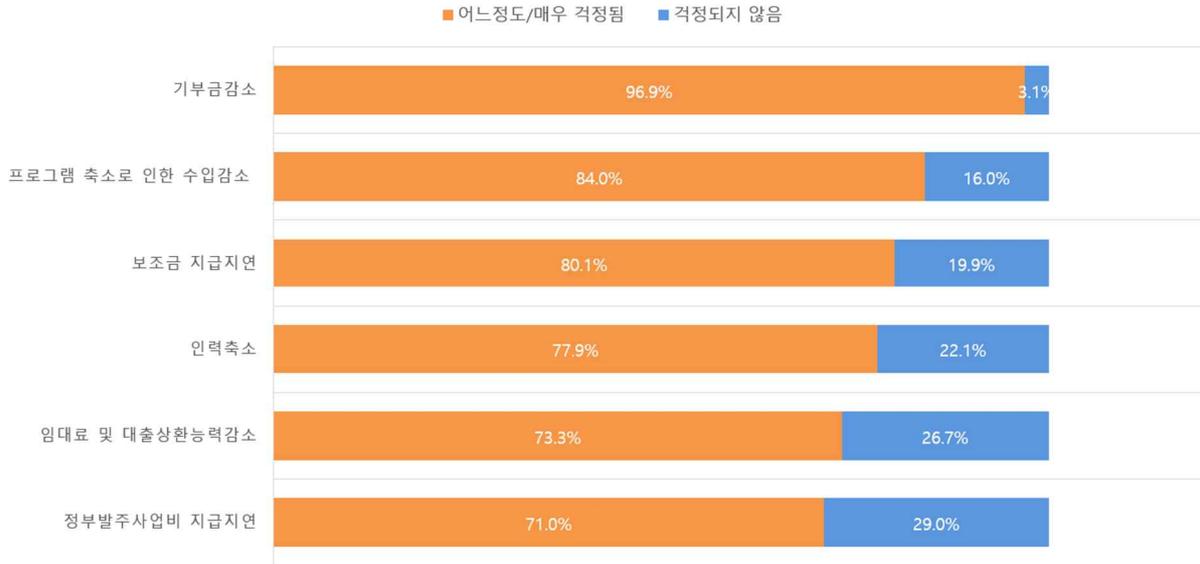
인건비 지급에 대한 불안감은 직위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응답자 중 최고관리자, 중간관리자, 일선실무자 중, 일선실무자가 44%로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인건비 지급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답하였다.



[그림 10] 응답자 직위별 인건비 안정성에 관한 전망

3.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비영리 단체가 우려하는 점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향후 단체가 가장 우려하는 점들에 관해 질문하였다. 항목은 '기부금 감소', '이벤트/프로그램 축소로 인한 수입 감소', '정부 발주사업수행관련 잔금 축소', '임대료나 대출상환 불가', '인력 축소' 등 기본적으로 사업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비용과 수행 인력에 관한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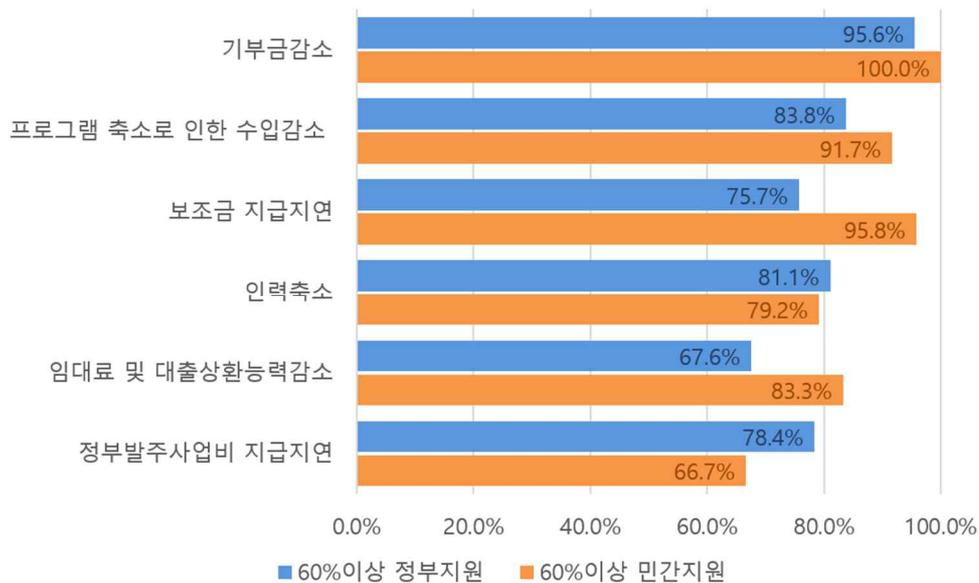
[그림 11]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비영리 단체가 우려하는 점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비영리 단체가 우려하는 점으로는 설문대상 기관 96.6%가 '기부금 감소'를 가장 걱정한다고 답했고, 프로그램 진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통한 수입감소' 및 '지원 보조금 지급 지연 및 감소'를 가장 상위 세 가지 어려움으로 답하였다. 본 조사의 모태가 된 미국 샌디에고 대학이 시행한 조사 결과의 경우, '기부금 감소', '프로그램 축소로 인한 수입감소', '보조금 지급 지연'이 상위 세 가지 어려움으로,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



[그림 12]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비영리 단체가 우려하는 점: 설립연도 VS 총지출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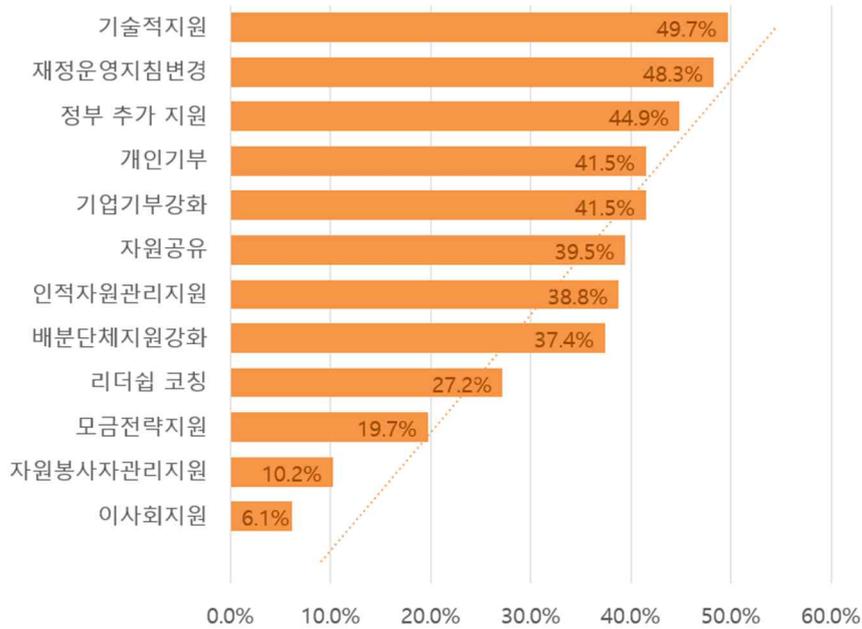
사업비 지출규모가 작고 신생단체일수록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수입원의 축소에 대한 압박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다. 설립연도 5년 미만 단체는 100%가 '기부금 감소', '프로그램 보조금 지급 지연'이 걱정된다고 응답하였다. '임대료 및 대출 상환 능력 감소'를 제외하고는 모두 80% 이상으로, 전반적으로 이슈에 대한 걱정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지출 규모가 1억 미만 단체 역시 '기부금 감소가 걱정된다'가 100%, '프로그램 축소로 인한 수입감소'가 92.3%로 보인다.



[그림 13]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비영리 단체가 우려하는 점: 재정 의존도에 따른 차이

재정 의존도 차이에 따른 결과는 민간 지원이 재정 비율이 높을수록 전반적인 걱정 수준이 높았다. 위 그림의 파란색 막대그래프가 재정의 60% 이상이 정부지원인 경우며, 주황색은 재정의 60% 이상이 민간지원으로 구성된 경우다. 전자의 경우, '기부금 감소', '프로그램 축소로 인한 수입감소'가 각각 95.6%와 83.8%이다. 후자의 경우도 기부금 감소, 프로그램으로 인한 수입감소가 동일한 순위로 나타났으나 100%, 97.1%로 정부 지원의 재정 비율이 높은 단체보다 다소 높은 수준을 보인다.

4.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 비영리 단체가 가장 필요한 지원



[그림 14]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 비영리 단체가 가장 필요한 지원

팬데믹 상황에서 비영리 단체가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는 예상대로 '기술적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는 상황변화에 따른 기존의 '재정운영 지침 변경', '정부의 추가 지원' 순이다. 샌디에고 대학 조사 결과의 경우, '새로운 수입 창출을 위한 모금 전략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이후에 비영리 단체에게 필요한 지원 및 도움에 대해 기부자, 정부, 기업 리더에게 실시간으로 알려 자원을 공유해야 한다고 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재정 운영 계획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다는 응답이 주를 이루었다. 한국의 경우, 현 시점에서 사업 운영과 지원에 관한 요구가 있었다면, 샌디에고 조사의 경우, 한정된 재원을 돌파하는 새로운 시도에 단체의 욕구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보인다.

설립연도별

1순위	2순위	3순위
5년 미만 정부의 재정적 추가 지원(71.4%)	개인기부(64.3%)	기술적 지원(57.1%)
5년 이상 10년 미만 배분단체 지원강화(56.5%)	기업기부강화(56.5%)	기술적 지원(52.2%) 비영리단체 필요한 자원 도움 공유(52.2%)
10년 이상 이사회의 긴급 대응 지침 제공(61.7%)	재정운영 지침 변경(58.2%)	기술적 지원(51.9%)

총지출 규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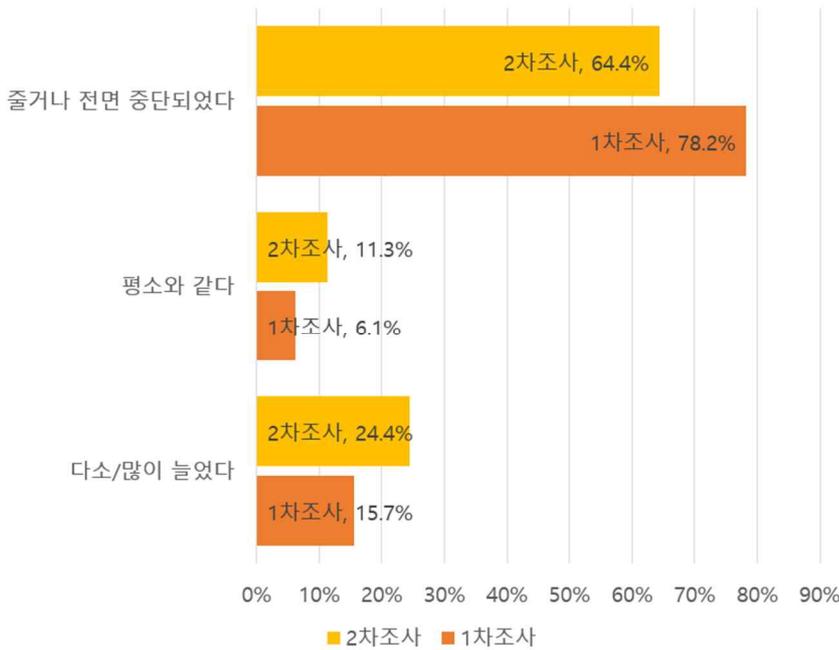
1순위	2순위	3순위
1억 미만 배분단체 지원강화(61.5%) 인적자원 관리지원(61.5%)	리더쉽 코칭(53.9%)	
1억 이상 - 5억 미만 개인기부(6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분단체지원강화 정부추가지원 재정운영지침 변경(51.4%) 	
5억 이상 이사회의 긴급 대응 지침 제공(85.7%)	재정운영지침변경(60.0%)	기업기부강화(52.9%)

[표 1]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 비영리 단체가 가장 필요한 지원 : 설립연도 VS 총지출 규모

설립연도에 따라 가장 필요한 지원에서 차이를 보였다. 5년 미만 단체의 경우, '정부의 재정적 추가지원이 필요하다'(71.4%)고 답하였고, 5년 이상 10년 미만 단체는 '기업기부강화와 배분 단체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56.5%)고 답하였다. 설립된 지 10년 이상 된 단체는 '이사회의 긴급 대응 지침 제공'(61.7%)을 우선순위로 두어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의 비영리 단체 운영 전반에 관한 매뉴얼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총지출 규모에 따라 살펴보면, 총 지출액 1억 미만의 단체는 '배분단체지원 강화와 인적자원관리 지원이 필요하다'(61.5%)고 하였다. 총 지출액 1억 이상 - 5억 미만의 경우, '개인 기부가 필요하다'(62.9%)고 보았고, 5억이상의 경우 설립연도 10년 이상 단체와 동일하게 '이사회의 긴급 대응 지침 제공이 필요하다'(85.7%)고 하였다.

2 차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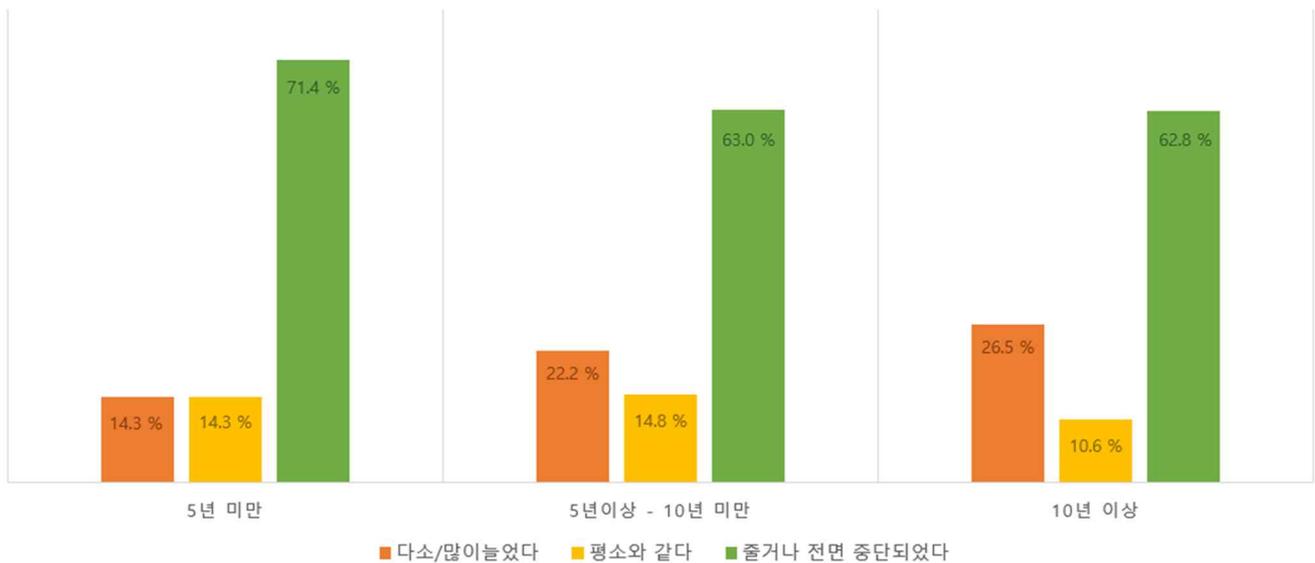
1.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 변화



1차조사가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비영리 단체가 제공하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의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았다면 2021년에 실시한 2차조사는 실제로 변화가 있었는지 조사했다. 1차조사의 경우, 78.2%가 프로그램 및 서비스가 줄거나 전면 중단될 것이라고 답한 반면에, 실제로는 64.4%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줄거나 전면 중단되어 실제 예상보다 약 10%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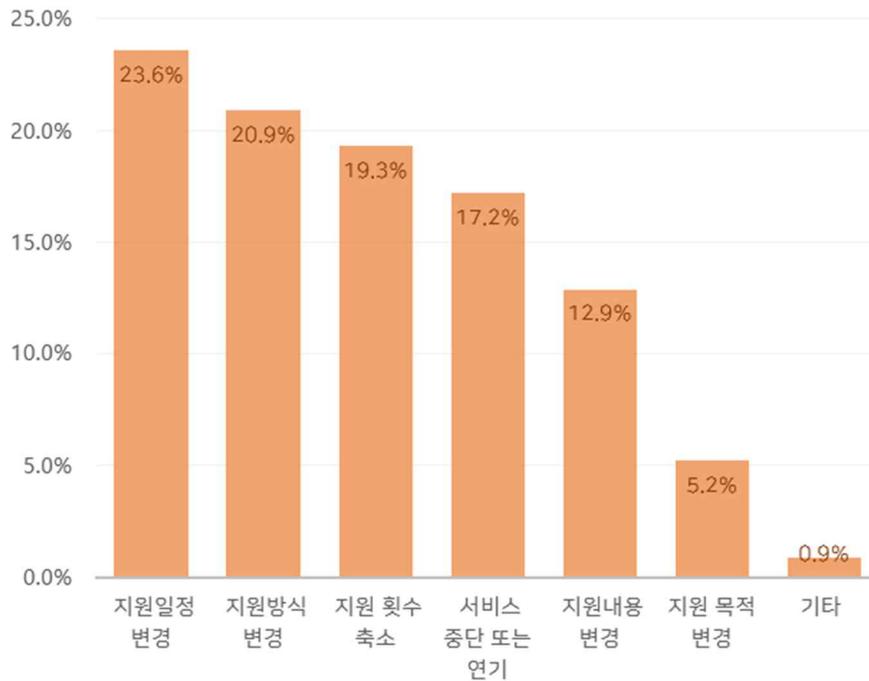
그러나 기존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그림 15] 코로나 19로 인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 변화에 관한 인식
 '줄거나 전면 중단되었다'는 답변이 1차 조사, 2차 조사 모두 50% 이상이다. 동시에, 1차보다 2차 조사 때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다소/많이 늘었다'는 응답이 10% 이상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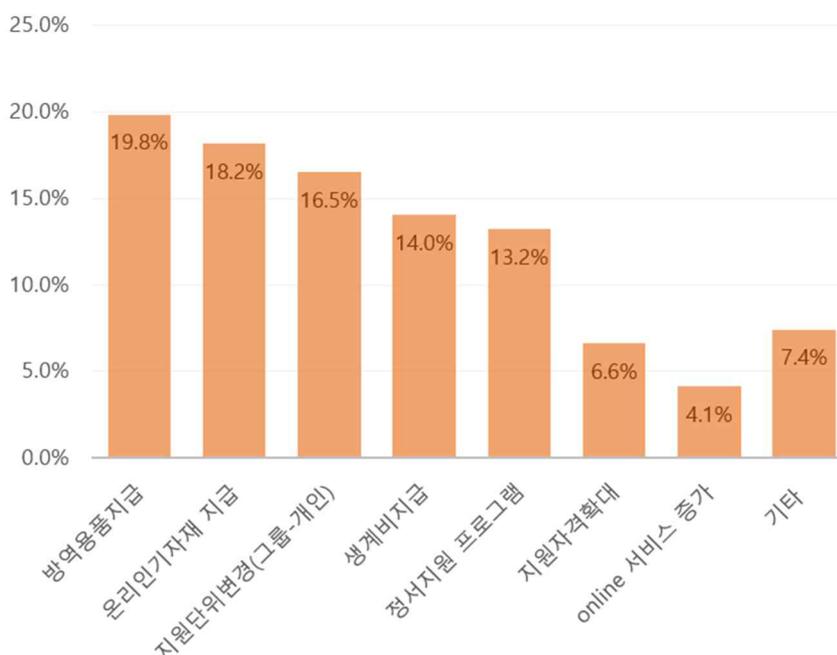
[그림 16] 코로나 19로 인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 변화에 관한 인식: 설립연도별

응답 기관 전체 모수의 한계가 있지만 1차조사와 마찬가지로 설립연도별로 살펴보면 신생 기관의 71.4%가 '서비스 프로그램의 중단을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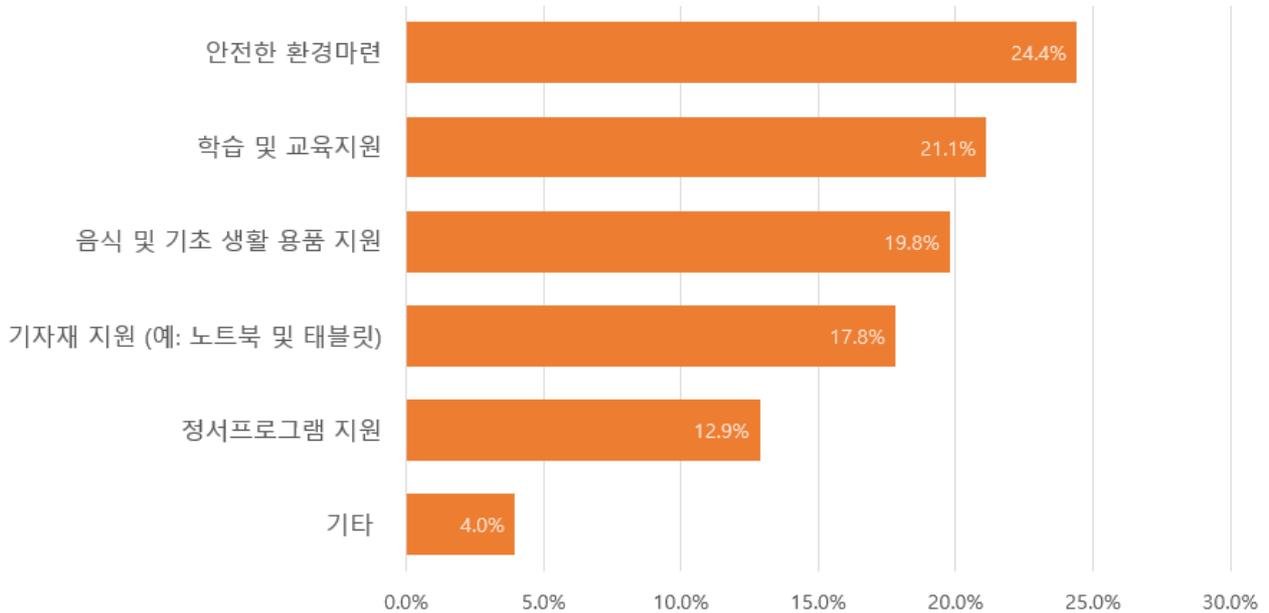
[그림 17] 코로나 19 로 인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 변화에 관한 인식: 축소 및 중단으로 인한 변화

1 차조사와 달리 2 차조사에서 추가된 내용은 프로그램 및 서비스 양적 변화로 인해 생긴 변화다. 즉, 프로그램 서비스가 중단 또는 심각히 줄어든 경우 비영리 단체에 변화된 내용이 무엇인지 조사했다. 이 경우, 서비스 지원 일정과 지원 방식의 변경이 각각 23.6%와 20.9%을 차지한다. 이는, 비대면 소통이 증가하고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그룹 대상을 위한 프로그램 서비스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개별적 소통으로 전환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와 더불어, 지원 횟수도 축소되었다. 이는, 개별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인력 대비 서비스 제공 축소가 당연한 결과라고 예상된다.



[그림 18] 코로나 19 로 인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 변화에 관한 인식: 증가로 인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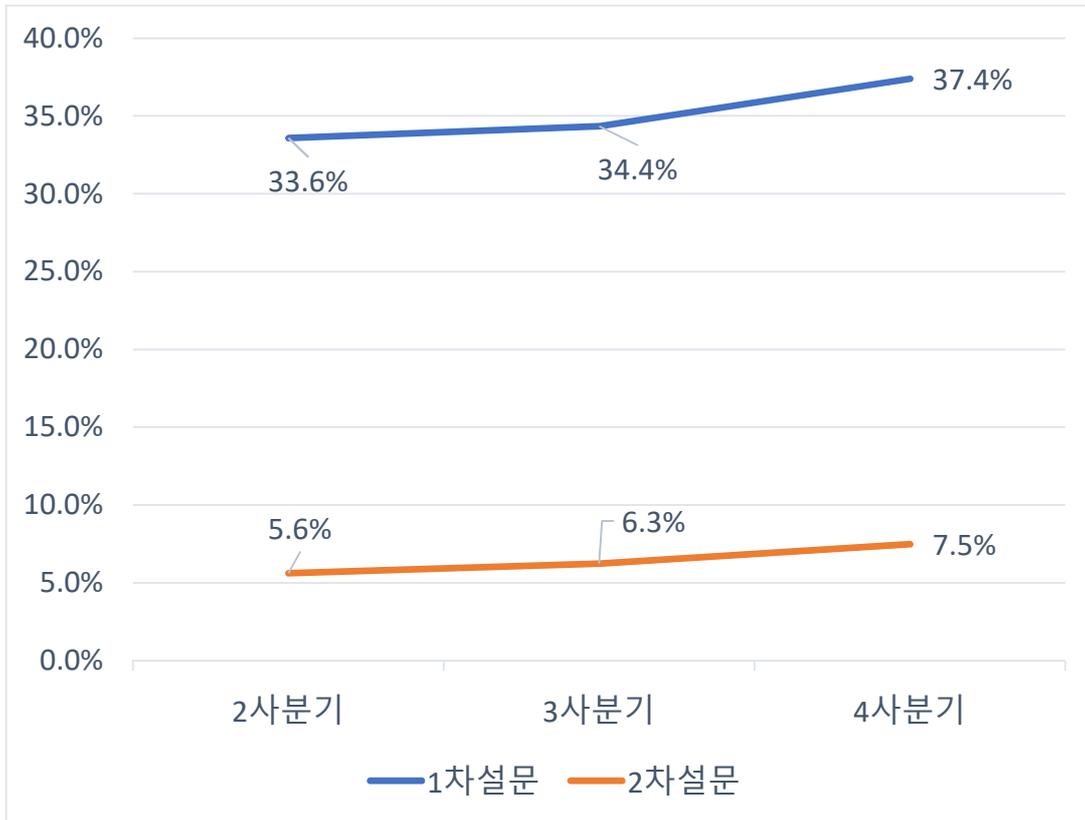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늘었다'고 답한 경우, 변화된 내용이 무엇인지 물었다. 예상한 바와 같이 코로나 19 지원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비영리 단체가 안전한 환경에서 비대면 활동을 해야 한 만큼 '방역 용품' 및 '온라인 기자재 지급'이 각각 19.8%, 18.2%를 보였다. 이 외에 '생계비 지원'과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정서 지원 프로그램도 지원한다'는 응답이 있었다. '온라인 형태의 서비스가 증가되었다'는 응답은 아직 4.1%로, 후순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 항목 또한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9] 코로나 19로 인한 가장 시급하게 비영리 단체에 요청된 프로그램 및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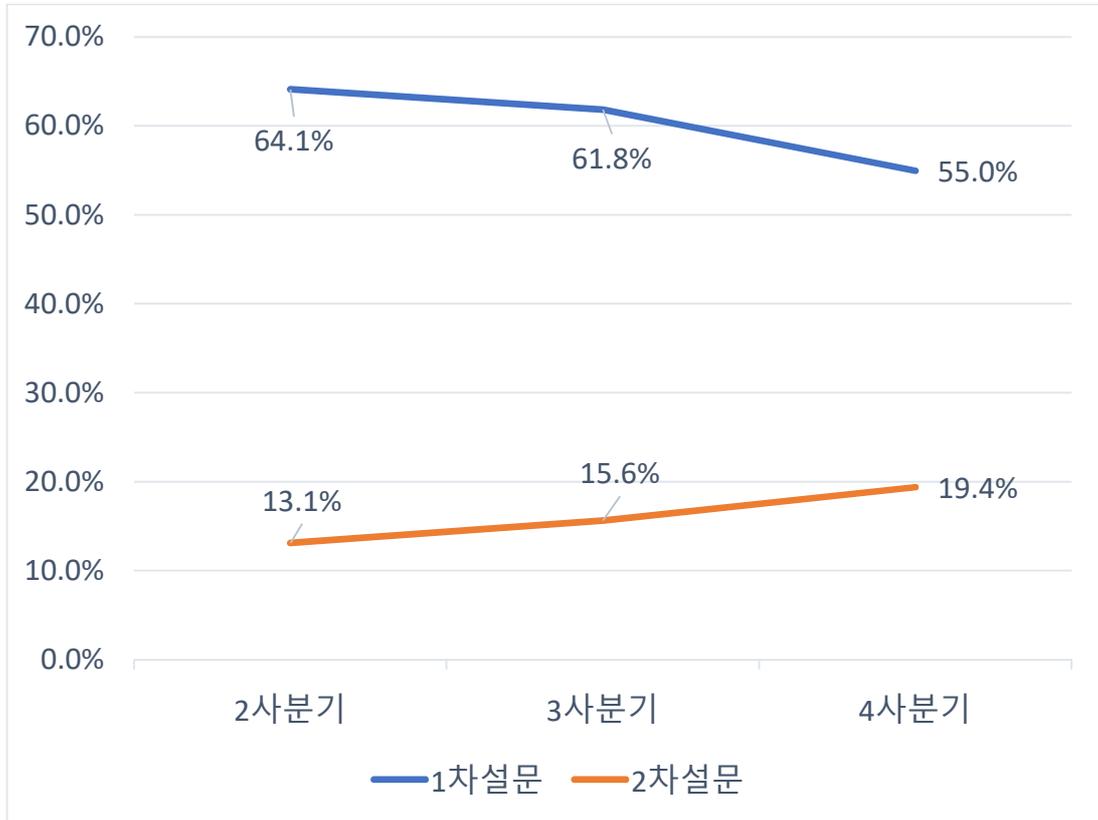
코로나 19 팬데믹은 비영리 단체 뿐 아니라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요청하는 내용도 달라졌다. 시급하게 요청된 서비스는 '마스크와 방역 물품 지원', '학습 및 교육지원'이 각각 24.4%와 21.1%로 나타났다. 온라인 사용이 늘어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방법이 요청된 것이다. 세번째는 생활비 및 식료품비를 요청하는 '기초 생활용품 지원'(19.8%)이었다. 코로나 19 팬데믹 속에서 변화된 환경에 대한 적응과 동시에 기본적 생활권까지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2. 코로나 19 팬데믹이 비영리단체 운영에 미친 영향



[그림 20]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인건비 삭감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비영리단체 사업운영비와 인건비가 실제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물었다. 인건비 삭감의 경우 파란색 그래프처럼 1차 조사에서는 '부족한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였고 2차조사에서 '실제 인건비 삭감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영리 단체는 10%이내인 것으로 나타난다. 더 나아가, 사업운영비는 인건비보다 더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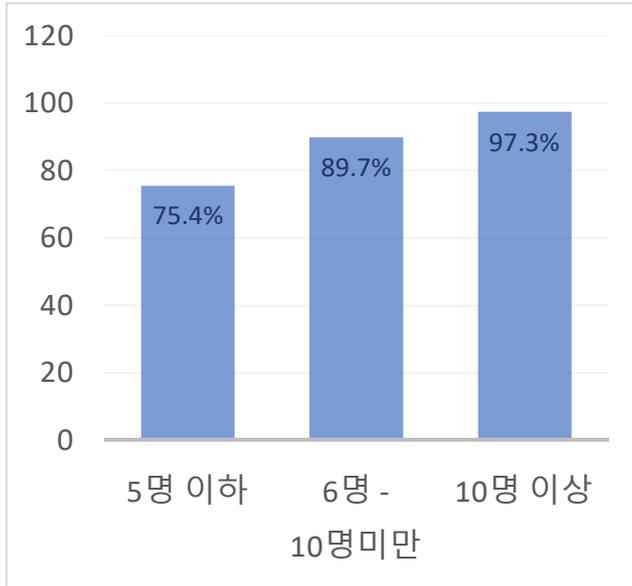
[그림 21]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사업운영비 삭감

1 차 조사에서 인건비 전망과 마찬가지로 사업운영비는 연말로 갈수록 더 좋아질 것이라 전망하였다. 파란색 그래프는 1 차설문 결과로, 사업운영비가 삭감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의 비율이 64.1%에서 2020 년 4 사분기 55%로 감소한다. 그러나 실제 경험을 묻는 2 차조사를 보면 13.1%에서 2020 년 연말 19.4%로 사업운영비의 실제 상황은 그보다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22]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사업운영비 삭감

2 차조사에서 실제 경험한 인건비와 운영비 삭감에 관한 경험을 보면 인건비의 경우 사업운영비와 함께 2020 년도 연말로 갈수록 좋지 않다. 그러나 인건비의 경우 2021 년도 상반기 삭감 비율이 감소한 반면 사업운영비는 2021 년도 1 사분기는 25.6%로 작년 2 사분기 대비 10%이상 증가하여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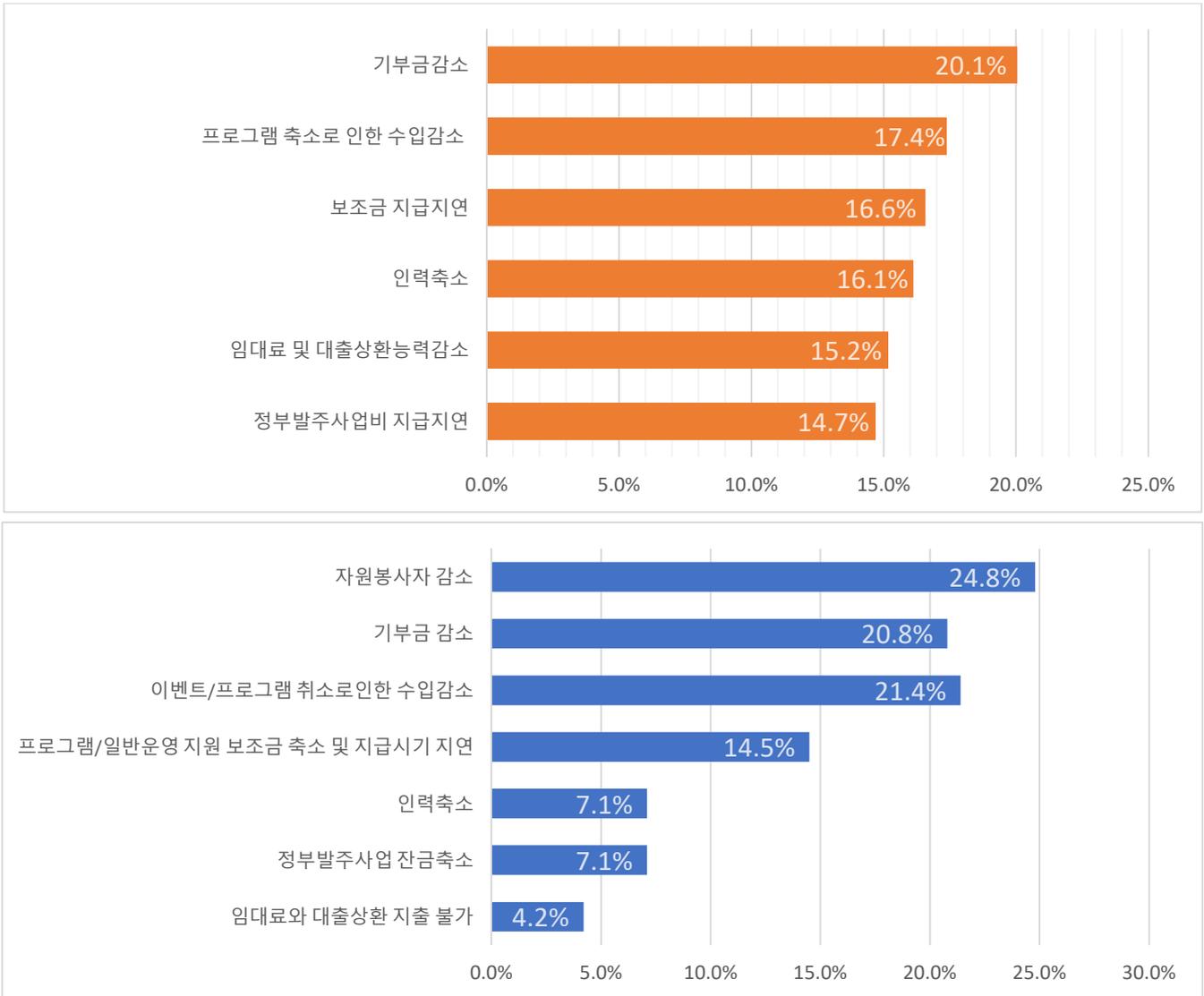
[그림 23]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건비 변화: 비영리 단체 종사자 수



[그림 24]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운영비 변화: 비영리 단체 종사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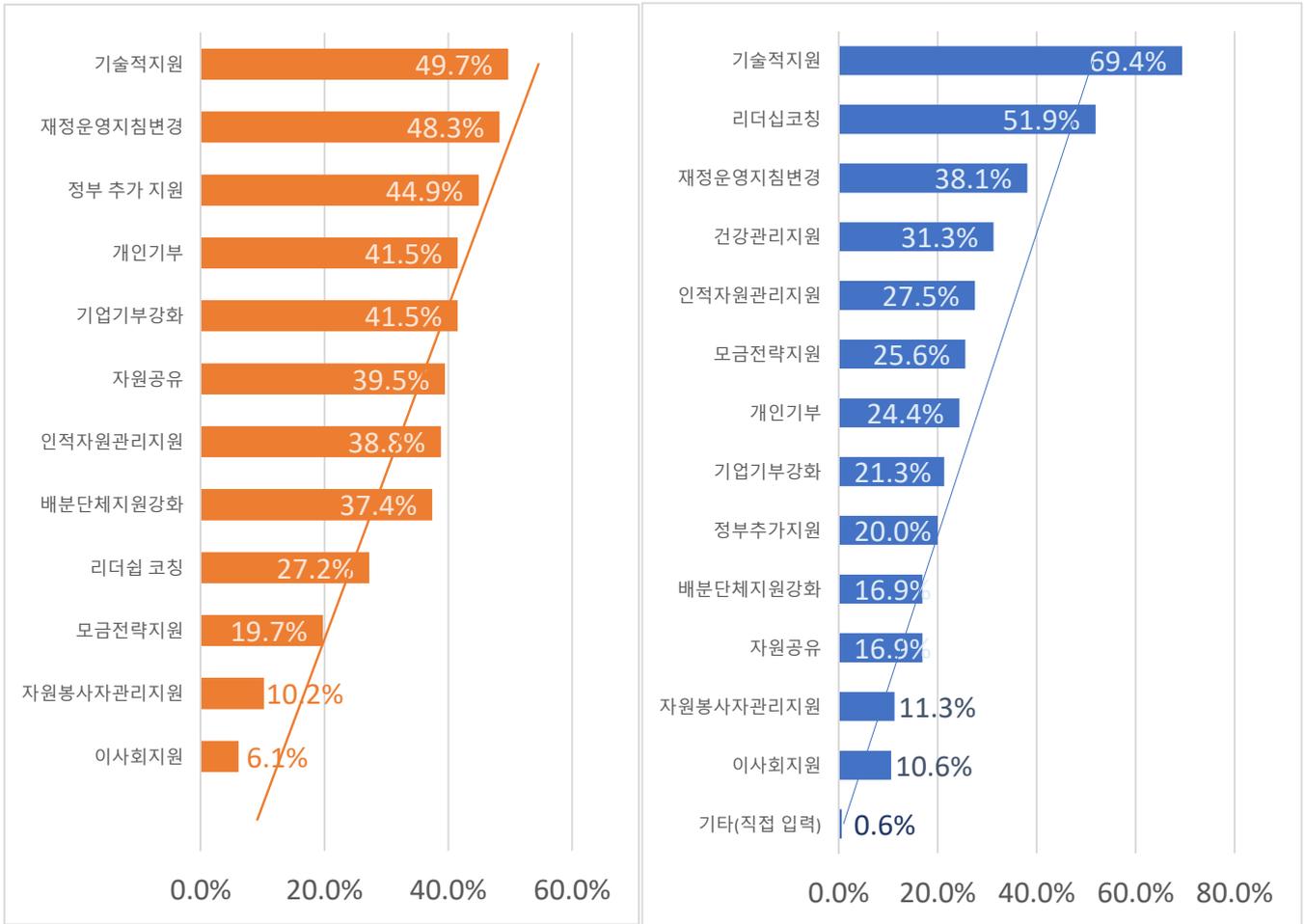
비영리단체의 규모를 종사자의 수로 본다면 5명 이하 단체들이 인건비 운영비의 변화를 더 많이 경험하여 규모에 따른 지원 역시 차별화를 두고 진행해야 한다.

3.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 비영리 단체가 요청한 가장 필요한 지원



[그림 25]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비영리 단체가 타격 받은 항목 (위부터 1 차조사, 2 차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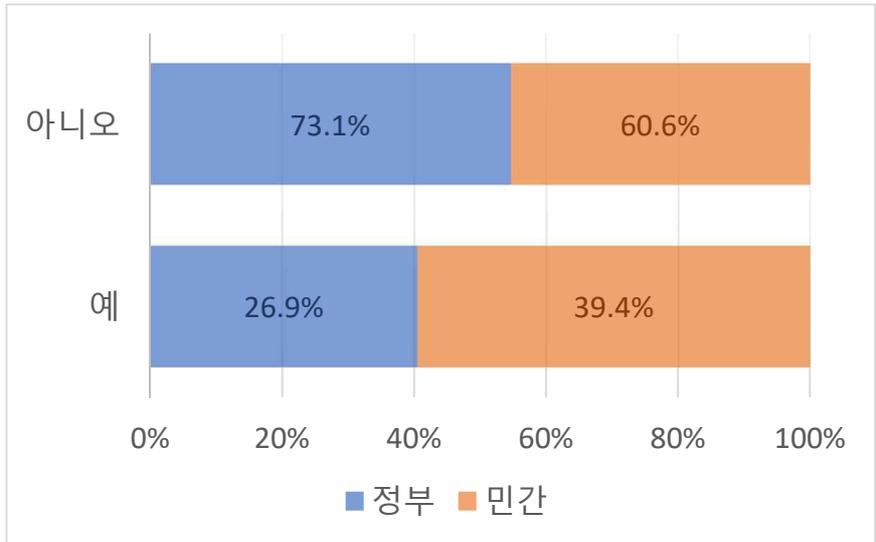
비영리단체가 가장 시급하게 요청했던 지원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앞서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비영리 단체가 어려움 겪고있는 항목을 조사했다. 1 차조사에 제시된 항목에 이어 2 차조사 때에는 '자원봉사자 감소'가 추가되었다. 1 차조사에서는 비영리단체가 '기부금 감소'와 '이벤트/프로그램 축소로 인한 수입감소'로 인해 어렵다고 답했다. 2 차조사에서는 '자원봉사자 감소', '이벤트/프로그램 취소로 인한 수입감소', '기부금 감소'가 각각 24.8%, 21.4%, 20.8%로 나타나 단체들이 프로그램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생존하기 위한 자원들이 모두 감소한다고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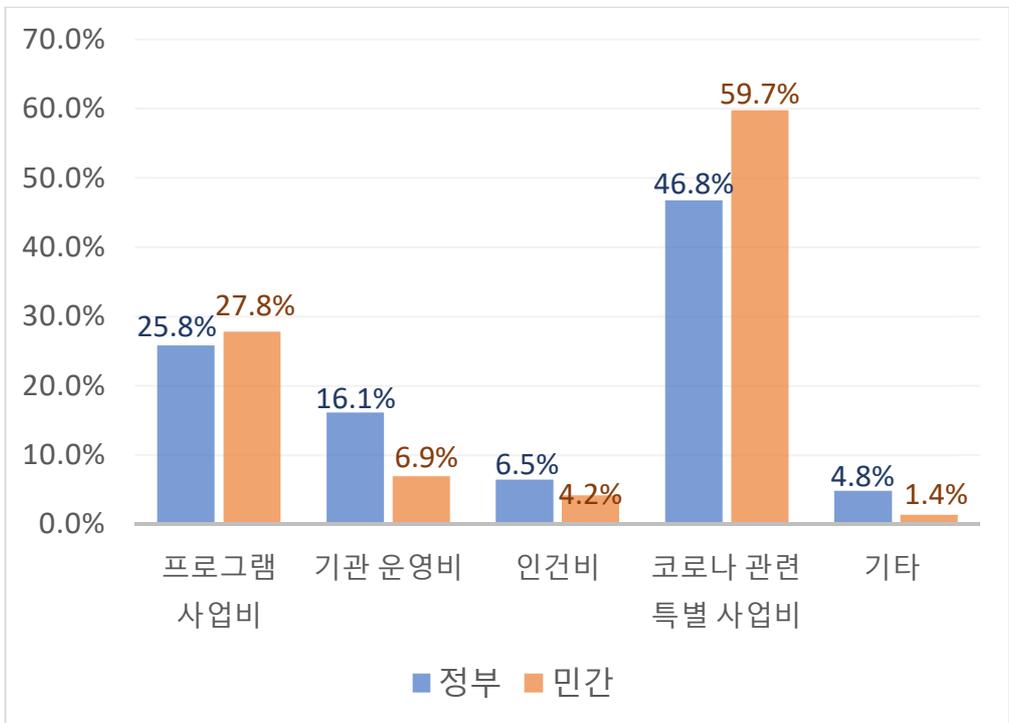
[그림 26] 코로나 19 팬데믹 동안 비영리 단체가 요청한 가장 필요한 지원 (좌측부터 1 차조사, 2 차조사)

비영리기관이 코로나 19로 인해 겪은 다양한 경험을 타파하기 위해 어떤 조치, 사업이 기관에 필요한지 1차, 2차에 걸쳐 조사했다. 1차 조사 경우 '기술적 지원', '재정운영지침 변경', '정부 추가 지원', '개인기부 및 기업 기부 강화' 등 자원마련의 시급성을 호소하였다. 2차 조사는 '기술적 지원'(69.4%), 긴급대응지침을 기관리더십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답은 '리더십 코칭'(51%), '재정안정화를 위한 재정운영지침 변경'(38.1%)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는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 여전히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관해 변화된 바가 없다. 하지만, 코로나 19의 장기화와 자원마련의 한계점을 경험한 비영리기관들이 운영에 관한 지침인 매뉴얼의 필요성을 인지하고있다고 해석되며,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환경변화에 따른 준비를 기관이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느낀다고 볼 수 있다.

4.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 지원과 사용처



[그림 27] 코로나 19 팬데믹 동안 비영리 단체가 받은 지원 주체: 정부 VS 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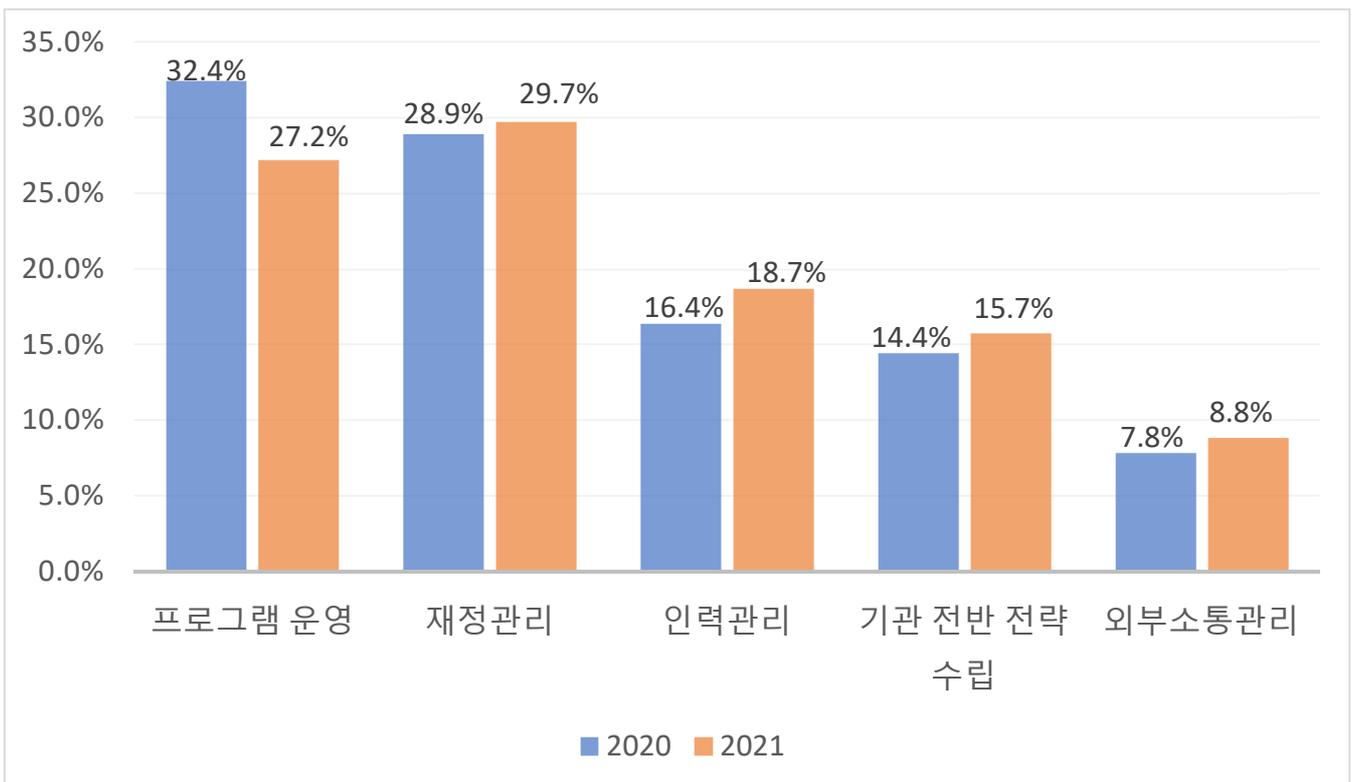


[그림 28] 코로나 19 팬데믹 동안 비영리 단체가 받은 지원의 사용처: 정부 VS 민간

코로나 19 시기 동안 정부 또는 민간기관으로부터 구호기금 또는 물품을 받은 적이 있는지 물었고, 정부지원은 73.1%, 민간지원은 60.9%가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정부나 민간지원의 경험이 있는 비영리기관은 26.9%가 정부지원, 39.4%가 민간지원의 경험이 있는 기관으로 민간지원이 정부지원보다 높았고, 민간지원의 경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출처가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다. 코로나 19 방역용품에 관한 정부 및 민간 지원이 압도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금 물품을 사용한 곳은 단연 코로나 관련 특별 사업이었다. 이 외에 프로그램 사업비 기관운영비도 일부 존재하지만, 이는 대부분 사회적 기업 쪽에 해당되는 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5. 코로나 19 팬데믹 : 2020 년 경험 vs 2021 년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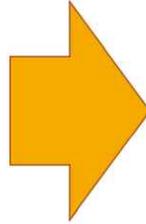
2 차조사에서 코로나 19 를 대응하기위해 기관에서 한 일 과 앞으로 2021 년에 주력할 활동에 관해 조사했다. 그에 관한 내용을 보기에 앞서 기관이 처한 어려움이 무엇인지 물었다.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을 만큼의 어려움을 겪었다,'부터 비영리기관 종사자 스스로도 일을 하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를 이야기 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있다. 기본적으로 자원봉사자 모집 모금활동의 어려움이 있고 대면이 필수인 사업은 아예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어떻게든 사업을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환경을 온라인화 하는 과정에서도 적응은 쉽지 않다. 대면 행사를 하더라도 방역수칙, 업무 등의 증가로 전반적 업무가 증가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기관에서 2020 년에 가장 많이 했던 일은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대응'이 32.4%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한계가 많은 상황에서 프로그램 서비스 대기명단은 늘지만, 핵심서비스기능을 강화하고 사업을 선별운영하기도 했다. 물론 코로나 19 관련 신규프로그램 개발도 하였다. 더불어 재정관리를 위해 활동, 즉 새로운 모금캠페인을 기획하거나 필수 지출 외 비용을 삭감하는 등의 재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노력도 놓치지 않았다. 2020 년은 전반적으로 프로그램 운영 재정관리에 초점을 두었다면 2021 년 대응에 관해서는 물론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내용이 2 위를 차지하지만 재정관리, 인력관리 기관 전반전략수립등에 관한 부분들에 비영리 단체가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특히, 리더십, 비영리 회계에 관한 지침 변경, 인적 자원관리에 관한 교육강화 등 경영적 측면의 요구가 상당히 중요해졌다. 이를 대비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재정 지원보다 비영리 조직 경영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림 29] 코로나 19 팬데믹 동안 비영리 단체의 대응 현황

2020년

- 1위 : 코로나 19 관련 신규 프로그램
- 2위 : 필수지출 외 비용 삭감
- 3위 : 자원봉사자 감소
- 4위 : 기관 전략재수립
- 5위 : 프로그램 통합 또는 선별운영
- 6위 : 새로운 모금 캠페인 기획
- 7위 : 모금 활동 축소



2021년

- 1위 : 코로나 19 관련 신규 프로그램
- 2위 : 새로운 모금 캠페인 기획
- 3위 : 기관전략 재수립
- 4위 : 필수 지출 외 비용삭감
- 5위 : 핵심 서비스 기능 강화
- 6위 : 타단체 협업 증가
- 7위 프로그램 통합 또는 선별운영

2021년에 새로운 모금 캠페인 기획과 기관 전략 재수립의 중요성이 예년과 다르게 높은 순위를 보인다는 것은 결국 '코로나를 겪은 전과 후는 다른 세상' 일 것이며 그에 대한 기관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해석된다.

III. 합의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비영리 단체는 치열하게 제 몫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조사 결과, 서비스 삭감의 정도는 우려와 달리 적었다. 미국의 샌디에고 연구조사 경우 응답 기관 71%가 서비스 감소를 경험했다. 비교적 한국이 방역도 잘했지만 시민사회가 운영을 잘했다고 볼 수 있다.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비영리섹터가 결국 코로나 19 시기에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고 이 시기에 정부와 민관 협업 사례가 더 늘어났다.

코로나 19 를 겪으면서 프로그램 서비스를 운영하는 비영리 단체의 경우 여전히 방역용품과 온라인 기자재지원과 같은 사업진행을 위한 필수적인 항목에 갈증을 느낀다. 이 부분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와 더불어 기관 운영 및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원 마련이 시급하다. 코로나 19 로 인한 인적 물적 자원 마련에 타격을 받고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운영비 재원 부족 경험도 높아지고 있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기관 존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관 스스로 재무 운영에 영향은 미미하다고 응답했지만 이는 기관 내 직원들이 역할 수행을 열심히 한 점과 국가 대응 정책이 잘 조화를 이루어 시민사회 영향이 최소화 된 까닭이 분명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반드시 장기적 전략이 필요하며 지금이 이를 논의할 중요한 시기이다.

마지막으로, 장기적 전략과 동시에 정부지원이 필요하다.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재난의 상황 속에서 정부가 발빠르게 움직이기 어려운 부분에 비영리섹터가 채워주고 있는 만큼 비영리기관 자체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코로나 발발과 동시에 미국 CARES ACT 법안을 통과시키며 비영리단체 대한 긴급융자지원, 고용에 관한 지원정책등을 포함시켜 비영리기관 자체에 대한 지원도 정부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비영리기관 역할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마련되어야 한다. 코로나 19 가 끝나더라도 코로나 19 전과 후의 세상은 분명 다르다. 그것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영리섹터에서는 끊임없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논의과정에 있어서 비영리섹터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변화되는 양상을 따라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즉, 코로나 19 초기인 2020년에는 재정 지원이 시급했더라면, 1년이 지난 2021년에는 비영리조직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비영리조직 현장의 필요에 따라 코로나 19 이후 비영리조직 전반에 관한 전략의 재수립하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